경주 양동마을
500년 세월이 오롯이 남아 있는 반촌

경주 양동마을은 월성(月城) 손씨와 여강(驪江) 이씨 양대 가문이 500여 년간 대를 이어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반촌(班村)이다. 지난 2010년 7월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이진욱 기자

1

양동마을은 살아있는 우리나라 건축의 전시장이다. 경주시에서 동북방향으로 20㎞쯤 떨어져 있는 양동마을은 설창산(해발 163m)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의 서편에는 비옥한 안강평야가 드넓게 펼쳐져 있다. 양동마을은 일찍이 이 들판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부촌으로, 설창산의 문장봉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勿'(물) 자형의 지세를 이룬 명당이다. 물봉골, 안골, 장태골, 갈곡 등으로 불리는 골짜기마다 사대부들이 살던 크고 작은 고택과 초가들이 들어앉아 있다. 마을 앞으로는 양동천이 길을 따라 흘러나가 안락천과 만난다.

규모가 큰 기와집은 구릉에 자리를 잡고, 규모가 작은 집이나 초가는 골짜기에 모여 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지형의 위와 아래로 나누어 입지했고, 두 가문의 종가는 골짜기 맨 위쪽을, 분가는 봉우리에 자리잡았다. 양동마을은 주어진 지형을 계급과 가문이라는 사회구조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다.

양동마을은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가 500년 넘게 터를 일구며 살아온 곳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吳)씨, 류(柳)씨, 장(莊)씨가 세거했다는 구전이 있으나 문헌상 입향조는 이시애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운 손소(孫昭)로 기록돼 있다. 손소는 장인인 풍덕 류씨 류복하의 무남독녀와 결혼해 양동으로 들어왔고, 슬하에 5남 1녀를 두었다. 또 이번(李蕃)이 손소의 딸에게 장가들어 이곳에 정착해 동방 5현으로 불리는 회재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을 배출했다. 이렇게 해서 양동마을은 두 성씨가 주도하는 이른바 양성 씨족마을의 틀을 갖췄고, 지금까지 씨족마을의 대표적인 구성요소인 종택, 살림집, 정자, 서원과 서당 그리고 주변 농경지와 자연경관이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다. 현재 150가구 3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80여 가구가 이씨, 20여 가구가 손씨다.

옛 전통문화와 자연 풍치를 잘 간직하고 있는 양동마을은 마을 전체가 중요민속자료 제189호로 지정되어 있다. 중요 문화재로는 통감속편(국보 제283호), 무첨당(보물 제411호), 향단(보물 제412호), 관가정(보물 제442호), 손소영정(보물 제1216호)이 있으며 서백당(중요민속자료 제23호) 등 중요민속자료 12점과 손소선생 분재기(경북유형문화재 제14호) 등 도지정문화재 7점이 있다.

1 비옥한 안강평야의 동쪽 구릉지에 위치한 경주 양동마을은 '물'(勿)자형으로 뻗은 구릉의 능선이나 골짜기에 가옥들이 들어서 있다. 그 배치 또한 듬성하고 능선마다 우거진 숲이 있어 가까이 접근해야만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한국 10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주차장 옆의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양동'이라는 표지석을 지나면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양동마을문화관이다. 지난 2012년 7월 개관한 마을문화관에서는 양동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본 정보 없이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도통 뭐가 뭔지 모르기 십상이고, 마을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기 쉽지 않다.

2 양동마을은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반촌으로, 거의 모든 가옥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 초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향단(사진 맨 위쪽)은 처음엔 99칸 집이었으나 지금은 56칸만 남았다. **3**, **4**, **5**, **6**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한 양동마을문화관은 양동마을 주택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마을의 전반적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3

4

5

6

1, 6 보물 제411호인 무첨당은 조선 중기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회재 이언적 선생의 부친인 이번 선생이 살던 집으로, 1508년에 지어진 여강 이씨 종갓집이다. 사랑채의 날아갈 듯한 처마가 아름답다. 2, 3, 4, 5 안골 깊숙한 곳에 있는 서백당은 월성 손씨의 대종택이다. 지금도 손씨 집안 대종가의 종손이 사는 큰집이다.

마을의 가장 큰 골짜기 언덕배기에 손씨 종가인 서백당(書百堂)과 이씨 종가인 무첨당(無忝當)이 자리 잡았고, 마을 어귀에도 두 집안의 가장 큰 분가인 관가정과 향단이 힘을 겨루듯 자리 잡고 있다.

평일 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발길도 뜸하고, 마을도 한적하다. 마을 가장 안쪽에 자리잡은 안골에는 손씨 가문의 입향조가 지은 서백당과 향나무가 고풍스러움을 자아낸다. 1459년에 지어진 월성 손씨 대종가의 사랑마당에는 당시 심은 향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서백은 '하루에 참을 인(認) 자를 백 번 쓴다'는 뜻이고, 서백당은 송첨(松簽·소나무 가지로 이은 처마)이라고도 불린다. 서백당은 '一' 자형의 행랑채와 'ㅁ' 자형의 몸체가 전후로 나란히 배치돼 있다. 행랑채는 정면 8칸, 측면 1칸으로 오른쪽 단에 광을 두고 바로 그 옆에 대문간이 자리잡고 있다. 김옥점 문화관광해설사는 "서백당은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고택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며 "집마다 향나무가 있는 것은 제사 때 향을 피우기 때문이며, 향나무 잎이 뾰족해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한다.

일부 서까래만 바꾼 채 지금까지 후손이 사는 서백당은 영남의 4대 길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터는 현인 세 사람이 태어날 삼현지지(三賢之地)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손소의 아들

인 우재 손중돈(孫仲暾, 1463~1529)과 외손인 회재 이언적이 이 집에서 태어났다. 그 때문에 손씨 집안에서는 시집 간 딸이 몸을 풀러 친정에 와도 받아주지 않는 관습이 생겼다고 한다. 큰 인물이 태어날 지기를 남의 성씨에 넘겨줄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서백당의 안채처럼 양동마을 내 많은 집의 안채는 관람하기 어렵다. 답사객이 주민의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손씨와 이씨의 입지 선정이 치열했는데 서백당에서 물봉골로 넘어가면 무첨당이 있다. 무첨당은 이언적의 부친인 이번이 살던 집으로 1460년경에 지은 여강 이씨의 종가다. 살림채 입구에 있는 무첨당의 평면은 'ㄱ' 자형으로 중앙에 6칸짜리 대청을, 양옆에 2칸 방을 하나씩 두었으며 왼편 앞쪽에 2칸짜리 누마루를 설치해 건물을 돋보이게 했다. 높직하게 달아낸 누마루는 바깥쪽으로 널문을 달아 외부의 시선을 차단한 반면 안쪽 마당으로는 난간을 달고 개방적으로 만들어 내부를 향한 열린 공간을 조성했다. 무첨당 사랑채에는 많은 편액이 걸려 있는데, '좌해금서'(左海琴書) 편액은 대원군이 죽필(竹筆)로 쓴 글씨로 유명하다.

서백당이 있는 능선 아래로는 사호당 고택, 상춘헌 고택, 근암 고택 등 이씨 가옥들이 들어서 있다. 또 안골과 물봉 사이에는 여강 이씨 수졸당파의 종가인 수졸당이 아늑한 터에 자리잡고 있다.

1

2

3

‘두 가문의 자존심’ 관가정과 향단

무첨당에서 관가정(觀稼亭)으로 가는 길에서 초가의 나지막한 돌담 옆에 핀 홍매화의 연분홍빛 자태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관가정은 우재 손중돈이 손소로부터 분가한 집이다. 집과 정자를 겸한 독특한 양식의 관가정은 ‘ㅁ’ 자형 몸체에 전면 좌우로 날개를 뻗어 사랑채와 행랑채로 삼았다. 특히 기둥을 낮추고 지붕의 경사도 완만하게 낮춘 관가정은 구조상 휘어진 대들보를 사용했는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사랑채 누마루에 오르면 형산강과 들판의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데, 안강평야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까지 더해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게 한다.

관가정은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듯이 자손들이 커가는 모습을 본다’는 뜻이다. 또 양반들이 소작인들의 농사를 감독하는 기능도 했다.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아 비어 있고, 관가정 아래쪽에는 하인들의 거처인 가립집(초가)이 잘 보존돼 있다.

관가정과 마주 볼 정도로 가깝게 위치한 향단(香壇)은 이언적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할 때 중종 임금이 지어준 집으로 본래 99칸이었으나 한국전쟁 중 일부 소실돼 지금은 56칸으로 줄어들었다. 이 집은 ‘興’(흥) 자형으로 지은 건물로 향나무 한 그루가 상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관가정은 대부분 사각기둥을 사용했는데 향단은 모두 원기둥을 사용했고, 외견상으로 무척 화려하고 과시적이다. 마을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향단의 사랑채 마당에서는 성주산과 아랫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1, 4, 5 마을 외곽 서북쪽의 높은 암석 위에 세워진 수운정에서는 안강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2, 3 마을 초입에 자리한 관가정은 조선 중종 때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던 우재 손중돈의 고택이다.

4

5

손씨와 이씨 두 집안은 후대에 내려올수록 가옥뿐만 아니라 정자도 경쟁하듯 건립했는데 모두 10개의 정자가 전해온다. 정자는 자연의 경관을 즐기는 휴양처와 가문의 인사들이 모일 수 있는 회의처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수운정(水雲亭)은 손중돈의 증손이 1582년경에 짓고, 물과 같이 맑고 구름과 같이 허무하다는 수청운허(水淸雲虛)의 뜻을 따서 붙여준 이름이라고 한다. 수운정에서는 남쪽의 안강평야와 형산강의 경관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

고목에 둘러싸인 심수정(心水亭)은 형을 위해 벼슬을 마다하고 노모 봉양에 정성을 다한 이언적의 아우 이언괄을 추모해 건립한 정자다. 심수정은 “정(靜)이라는 한 자는 마음속의 물과 같다”는 이언괄의 말에서 따왔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큰길이 눈에 거슬리나 능선을 지나면 고택이 있고, 길이 끊어질 듯한 곳에서 정자가 반긴다. 고택들의 현판과 기둥, 빗장, 문고리 등이 품은 세월의 오래된 이야기는 끝이 없다. 골목마다 숨어 있는 양동마을의 500년 이야기를 찾는 외지인에게 봄날의 하루해는 짧기만 하다. Ⓨ